새학기 5·6학년 담임 기피 '전쟁'

"생활지도 어렵다" 여성화된 교단 주 원인

교장들 배정 곤욕…전입·초임 교사 덤터기

광주 A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신학기 담임교사 희망 신청을 받은 뒤 고민이 깊어졌다. 6학년 학급 담임을 맡겠다고 나선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이 교장은 "근무평점 향상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개인별 면담을 통해 설득 중이지만 쉽지 않다"면서 "학년 초만 되면 교사들이 6학년 담임 맡기를 꺼려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6학년 담임을 맡았던 A(여) 교사는 올해는 어떻게든 피해볼 생각이다. 경력 8년째임에도 벌써 세 차례나 6학년 담임을 맡았기 때문이다.

A교사는 "6학년은 중학교 입학에 대비하다 보니 수업 진행 등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특히 남학생의 경우 덩치가 성인과 비슷하고, 억센 행동도 많이 해 생활지도 때 겁이 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광주지역 초등학교가 6학년 담임 배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17일께 시교육청의 교원인사가 나면 학년별로 담임을 배정해야 하는데 6학년의 경우 자원자가 드물기 때문이다. 최근엔 5학년 담임도 맡기를 꺼리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젊은 교사나 새로 부임한 교사들이 6학년 담임을 맡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그해 첫 임용된 '새내기 교사'들이 6학년 담임을 맡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이 6학년 담임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지도가 어렵기 때문.

광주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여초(女超) 현상도 큰 원인이다. 여교사의 경우 5, 6학년 남학생만 돼도 지도하기가 버겁다는 이유로 담임 배정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50대 이상의 고연령 교사에게도 고학년 담임은 '금기'나 마찬가지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5, 6학년만되면 이미 사춘기에 접어들어 나이 많은 교사를 얕잡아 보는 경우가 많다"며 "더욱이 생활지도 중 사고가 생길 경우 학부모와 부딪치기 때문에 이래저래 힘든 일만 생긴다"고 토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학년 담임을 꺼리는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교장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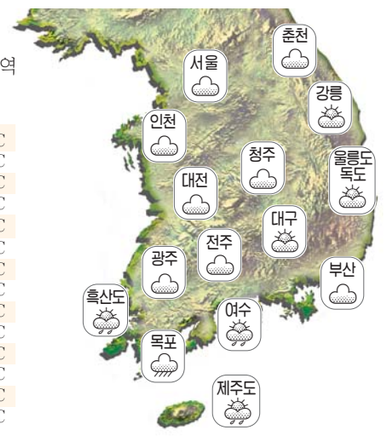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25분 해짐 18시 09분 달뜸 17시 50분 달짐 06시 58분

보름달 보며 소원 빌기

흐리고 낮 한때 비가 오는 지역이 있겠다.

광 주	흐림	2/9℃
목 포	흐리고 한때 비	2/8℃
여 수	흐리고 한때 비	4/8℃
완 도	흐림	2/7℃
구 례	흐림	-1/8℃
해 남	흐리고 한때 비	-1/8℃
장 흥	흐림	-1/8℃
고 흥	흐리고 한때 비	-1/9℃
순 천	흐리고 한때 비	2/10℃
영 광	흐림	2/8℃
진 도	흐리고 한때 비	0/8℃
전 주	흐림	2/8℃
남 원	흐림	0/8℃
흑산도	흐리고 한때 비	4/7℃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북서	0.5~0.5m
먼바다	남~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북서	0.5~1.0m
먼바다	남~북서	1.0~2.0m

	밀물	썰물
목포	01:32 14:20	06:59 19:39
여수	09:10 21:18	02:38 15:1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날 씨						
최저/최고	1/12	3/14	7/15	8/11	6/13	3/12

슬로시티 대보름 풍경 슬로시티(Slow city)인 담양군 창평을 찾은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8일,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 달구지를 타고 가며 즐거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슬로시티 담양군 창평서 추억의 대보름 체험행사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담양군 창평에서 옛 대보름의 민속행사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해주는 '추억의 대보름 체험행사'가 열렸다.

대보름 전날인 8일 창평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추억의 대보름 민속놀이 체험여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관광객 500여 명이 참여, 마을 대동제와 대나무 연 만들기, 불 깡통 만들기, 달집 태우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지금은 사라진 '소 달구지'가 등장하고 한과와 쌀 엿, 오곡밥, 논두렁 고구마 등 도시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먹을거리가 마련되는 등 '옛 모습과 전통음식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슬로시티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겨울 안개' 항공기 이용땐 확인을

광주공항 사흘째 결항

겨울철 짙은 안개로 사흘 연속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되는 등 불편이 커지고 있다.

8일 광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광주에서 출발해 김포로 갈 예정이던 대한항공 KE 1300편 등 4편이 김포공항에 낀 짙은 안개 때문에 결항됐고, 이로 인해 광주와 김포를 운항하던 다른 항공기까지 연쇄적으로 지연 운항됐다.

광주공항공사 관계자는 "겨울 안개로 인해 최근 3일 동안 항공기 12편이 결항됐다. 광주지역에 안개가 없더라도 도착지인 김포와 제주 등의 기상이 좋지 않으면 항공기가 결항될 수 있다"며 탑승객들에게 출발 전 결항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서해상에서 유입된 습한 공기가 광주 등 내륙지방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밤과 아침 사이 안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개 안개가 끼면 물 입자에 도심에 상존하는 오염물질이 흡착되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아침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정월 대보름인 9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낮 동안 대체로 흐리다가 밤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다"며 "곳에 따라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온정 밀물…'불우 학생' 대학 간다

광주일보 보도 후 각지서 600만원 성금

어려운 가정 형편속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 입학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던 C(18·광주 모 고교 3년)군이 본보 보도〈2월 6일자 6면〉 이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다.

C군은 광주시 서구 농성1동 김희환(60) 동장이 복역중인 친어머니를 대신해 보살펴온 학생으로 올해 중앙대에 합격했다.

8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C군의 사연이 보도된 이후 사회복지법인 '권동식 아벤티노 재단' 등 각지에서 600만원의 성금을 보내왔다. 김 동장도 대학 등록금 466만5천원 중 자신이 적금을 부어온 200만원 외에 추가로 266만5천원을 보탰다.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사람도 1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작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00여만원까지 성금을 보내왔으며 옷과 신발 등을 부쳐온 이웃들도 있었다.

특히 서구는 C군이 서울에서 어려움 없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를 찾아 연결해 주기로 했다.

전주언 서구청장은 "C군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대학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C군은 지난 2004년 12월 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친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한 죄로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자 동생(17·광주 모 고교 2년)과 함께 광주에 사는 외할머니의 집에서 생활해 왔으며, 김 동장은 지난 5년여 동안 이들 형제를 친자식처럼 뒷바라지해 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억5천만원 보이스피싱 대만인 등 5명 영장

목포경찰은 8일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대만인 림모(41)씨 등 5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박모(여·67)씨 등 13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ARS 전화를 이용해 경찰,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하는 내용의 전화는사기일 개연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특수교사 7명 배출 광주여대, 지역 최다

광주여자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특수교사를 배출했다.

8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2009학년도 국공립 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과는 광주·전남지역 초등특수교육과 중 가장 많은 7명의 특수교사를 배출했다. 교육청별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1명(김설희), 경남교육청 1명(김성희), 광주교육청 1명(신지인), 전남교육청 4명(박미영, 김미송, 임수진, 부란)이 최종 합격했다.

또 미용과학과는 서울교육청과 경남교육청에서 총 9명의 미용교사를 모집하는 중등 미용교사임용시험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편 광주여대는 최근 2009학년도 신입생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1천10명 모집에 1천22명이 등록을 마쳐 101%의 등록률을 보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